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맡기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땅 끝입니다. 내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노라 하는 나 자신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237과 5000 종족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3월, 금요일 시대, 묵상시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후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막에도, 성전에도 3월이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3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금요일시대를 회복해야 문화도 회복하고, 묵상시대를 회복해야 네피림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흐름 속에 나는 어디 있고 지금은 어떤 흐름인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응답을 분명한 사실로 붙잡아야 합니다. 영적 서밋 타임(1)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무조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에, 육체에, 삶에 힘을 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의 분명한 목표(2)는 300%입니다. 나와 현장과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3)은 5가지 흐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현장과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침, 낮, 밤에 5분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서밋의 신분(4)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망대를 짓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서밋의 권세(5)는 3월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전도(6)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수준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전도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의 선교(7)는 캠프입니다. 살리는 캠프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고 네피림을 치유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3캠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떠났냐 질문하지 않으셨습시다. 뜬금없이 창3:15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죄에서 해방되고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영적 갑옷을 입으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하고 근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안하니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24 기도, 25 능력, 영원에 작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24시 기도 속에 있다면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하기 때문에, 언제 적이 화살을 쏘지 모르니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차리고 근신하여 내 마음의 주인을 바라보는 24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 밤의 집중을 통하여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제일 우선순위를 기도로 두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론>

1.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벧전4: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의 화살을 갑옷을 입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죄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4:2)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끝난 사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과 축복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

고 전도자의 신분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벧전4:3)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살았던 인생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직자대회에서 첫 번째 강제가 과거 300% 해결입니다. 우리 강단 흐름이 지금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의 흐름과 정확히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틀과 생각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하에 안주하고 있는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과거를 깨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벧전4:4)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 때 비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빠져나온 과거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벧전4:5)

그들이 심판주에게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4:6)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지옥 간 것에 대해서 핑계대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살든 죽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영혼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24, 25, 영원의 기도가 나오니까? 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가 나오니까? 지금 시대 흐름 속에 하나님이 미리 정확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면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4:8)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감

사와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학, 북한, 문화, 다민족, 시니어, 신학생, 강복을 살릴 수 있는 센터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 가지고 부자 되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식에 물려줘서 뭐하렵니까?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의 주인은 쓰는 자입니다. 영적 갑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벧전4:9)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0-11)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은사를 맡긴 사람처럼 받은 은사를 각자 받은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벧전4:12)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불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마지막 때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기도하며 영적 갑옷을 입으란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벧전4:13)

복음 때문에 어려움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4:14)

복음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저는 전도자와 함께 남은 여생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복을

을 위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전도자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5시간이면 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항의할 수 없도록 지옥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냥 세상 살 듯이 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있는 삶을 237나라 5000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5-16)

혹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다락방 사람이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237나라 5000종족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이런저런 소문이나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자긍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벧전4: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악인이 득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벧전4:18-19)

여러분의 삶을 다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기세요. 분명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거를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남은 때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전도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입니다.

▶근신하며 기도하고 영적 갑옷을 입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